

황종우 해수부 장관, 항만물류업계와 발전방안 논의

- 하역시장 안정화, 항만시설 보안, 항만자동화 지원 등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

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9일(목) 한국항만물류협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항만물류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해 하역시장 안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,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.

황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세계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우리나라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항만물류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. 아울러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하역시장 안정과 항만 안전 및 자동화 등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.

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“수출입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항만물류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국가 경제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	책임자	과 장	정동원 (051-773-5770)
		담당자	사무관	강현희 (051-773-5773)
	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한울 (051-773-5750)
		담당자	사무관	이길호 (051-773-5757)
	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	책임자	과 장	한지웅 (051-773-5790)
		담당자	사무관	변지훈 (051-773-5795)

